

역시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지요.

- 저의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글을 쓸 때의 습관처럼 여기서 또한 높임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높임말이 주는 진중한 무게를 믿기에 저의 사랑의 내뿔음도 조금이나마 무게감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벼워도 상관 없습니다. - 이분법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 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떠한든 상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를 서로 꺼내었던 향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마지막,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미소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소의 의미는 반항자를 환영하는 흘러나온 기쁨의 미소이자 잔잔했던 향연을 뒤집는 순간에 대한 약간의 흥분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앞선 에로스를 깨버리는 존재였습니다. 아름다움의 가상을 깨버린 그는 향연의 반항자였고 역시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존재였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이 에세이의 제목인 '역시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지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실레노스로 비유하였습니다. 실레노스는 디오니소스의 동료이자 선생이며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인 사튀로스의 우두머리입니다. 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 어울리지 않는 디오니소스를 그와 비슷하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의미와 관계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진솔한 사랑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과연 이 둘이 명확히 이것과 저것으로 분리된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사랑 이야기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사랑이 왜 사랑스러운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근원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충돌입니다.

아폴론은 빛나는 자로 태양의 신입니다. 그는 논리적입니다. 그는 이성적입니다. 그는 질서정연함을 추구하며 합리적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화의 원리에 기대어 추호의 흔들림 없이 고요히 앉아 아폴론은 확고부동함과 고요함을 가장 숭고하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아폴론은 개별화의 원리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 준 신상이라고, 그의

몸짓과 시선은 우리에게 <가상>의 쾌락과 지혜와 함께 아름다움도 속삭인다고 말할 수 있다.¹

아폴론은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개별이라는 규칙에서 절제를 지킬 수 있는 인식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지러운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개별적인 단위로 쪼개어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단위에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과 절제를 강조하며 성스럽고 거룩한 법칙인 것처럼 쪼개어진 단위의 경계선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그를 따르는 개별자들의 불순한 세력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다를 잔잔한 호수로 만들려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바다에 이는 물결이 한번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기에 바다와 잔잔한 속성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 또한 쉴 새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춤을 추듯 말이죠. 빠른 템포이든 느린 템포이든 모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예술가처럼 세상은 춤을 추며 끊임없이 제 몸을 흔들기에 어지럽습니다. 이런 세상을 인식으로, 개별화의 원리로 나누고자 함은 ‘가상’과 같습니다. 바다를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고요하도록 갈라 놓는다 한들 과연 바다가 잔잔하게 갈라진 채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폴론적 차원은 이성과 개별화, 지혜로 그것을 가상의 세계에서 해냅니다. 인식과 이성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흔들림 없는 차원에서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나누고 가지런히 정리하여 이성과 합리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아폴론의 힘은 날카로운 칼질과 같습니다. 그의 칼날로 세상이 하나하나 따로 나뉘어지고 그 속에서 그를 따르는 개별자들은 문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폴론의 칼질을 디오뤼소스의 과거와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은 고통받은 비교(秘敎)의 신, 개별화의 수난을 몸소 겪은 디오뤼소스다. 어린 디오뤼소스를 티탄족이 갈기갈기 찢었으며 이런 처지의 신이 자그레우스라는 이름으로 경배되었다는 놀라운 일을 신화는 전해주고 있다.”²

디오뤼소스는 어릴 적 헤라의 명령을 받은 티탄족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적 있습니다. 디오뤼소스의 고난이 마치 개별화의 칼날에 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폴론 가상의 심연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개별화와 이성이라는 요새를 무너뜨리고, 아폴론의 평온한 향연을 출렁이게 만듭니다. 감정과 욕망, 본능의 광기 어린 축제에서 뿔어져 나오는 열정의 열기가 아폴론의 심해에서 끓어 오릅니다. 끓어 오른 바닷속 뜨거운 공기가 바다의 표면을 뒤흔들고 아폴론이 예쁘게 잘라 놓은 세계를 다시 어지럽힙니다. 이러한 디오뤼소스의 열광적 숭배자들을 사튀로스라 합니다. 디오뤼소스를 추종하는 사튀로스들은 술 마시고 춤추고 님프를 쫓아다니면서 숲이나 산을 돌아다니던, 음탕하고 짓궂지만 숫기 없고 소심하기도 한 반인반수 남성

¹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열린책들, 2014, 35쪽.

² 앞의 책, 100쪽.

집단입니다.³ 고백하건대,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읽기 전 실레노스와 사튀로스가 추잡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명과 거리가 먼, 야만적이면서도 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이 글의 처음에서 깨달았던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저의 무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추잡스럽고 아름답지 못하고 야만적이며 추한 존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을 버립니다. 이성, 질서, 논리, 합리적인 차원을 고상하며 품위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편견을 버립니다. 억누르지 못하는 본능과 휘몰아치는 감정이 반드시 육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매한 편견을 버립니다. 이런 편견 탓에 실레노스와 디오뤼소스가 나쁘며 옳지 않고 해롭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실레노스의 말 덕분입니다.

“가련한 하루살이 인생아, 우연과 고통의 자식아, 왜 나를 억지로 말하게끔 하느냐? 정녕코 듣지 않는 것이 네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 네가 가장 훌륭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인즉,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애초의 허무 그대로 있는 것. 하지만 네게 차선은 있으니 그것은 이내 죽는 것이라.”⁴

미다스 왕이 오랫동안 디오뤼소스의 동료이자 선생인, 지혜로운 실레노스를 쫓아가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탐낼 만한 것이 무엇이나고 말이죠. 저는 어리석게도 당연히 성적인 본능을 좇는 것이라고 답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실레노스의 말이 내장 속에서 무언가를 뱉어내고 싶은 듯 뱃속을 꿈틀거리게 하고 결국 감탄을 내뱉게 합니다. 이내 죽는 것, 비극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요소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감각을 아무리 아폴론의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그 본능을, 그 광기를 아폴론적 세계 속 사람들이 마주하기 위해선 이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본능은 죽은 우리가 자연으로 되돌아가거나, 신들을 넘어, 죽음 저 너머의 세계로 갈 때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폴론의 개별적 원리가 원초적인 것들을, 본능적인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조깅할 수 없습니다. 아폴론이 깨닫고자 하는 것,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 어지러운 세상을 이성이라는 칼날로 나누어 질서정연하게 분리하고자 하는 것 또한 그러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결국 아폴론, 디오뤼소스 그리고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뤼소스적인 것은 서로 얹힌 것으로 다시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하나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아폴론적임과 동시에 디오뤼소스적입니다. 따라서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이 창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이 둘이 부단히 투쟁하고 충돌하며 갈등하고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고뇌를 통해 창조적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렇게 아폴론적인 세계와 디오뤼소스의 세계가 공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사랑 또한 역시 사랑입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³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155쪽.

⁴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열린책들, 2014, 49쪽.

“소크라테스에게는 본능이 비판자이고 의식이 창조자였다. 실로 완전무결하게 망가진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그에게서 신비적 본성의 완전한 훼손을 목도한다. 마치 신비주의자에게서 본능적 지혜가 과도하게 발달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논리적 본성이 이상 발육되어 지나치게 발달한 비신비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⁵”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본능과 의식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에로스의 사다리는 상승의 움직임입니다. 그가 말하는 에로스의 사다리에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역동적인 존재로서 움직입니다. 이 사다리의 첫 단계는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육체적 감각을 사랑하고 본능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움직이기를 권유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앎을 맛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감각과 본능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계로 이르러 절제의 힘을 알려줍니다. 그는 쾌락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되 절제할 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로스의 위로 향한 단계를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반듯하게 갈라내어, 위와 아래라는 수직단계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육체와 본능의 아름다움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설정했으나 에로스의 시작이 다름 아닌 디오뤼소스적인 것임은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신비한 본성을 완전히 훼손하지 않으며 디오뤼소스적인 에로스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는 것입니다.⁶”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낳음과 출산에 대한 것이지요.’⁷

사랑의 기능이란, 몸에 있어서든 영혼에 있어서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낳는 것입니다. 이 낳는다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자가 불사자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한한 세월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며 소크라테스는 몸과 영혼의 임신과 낳음을 통해 이 욕망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아폴론적이면서 디오뤼소스적입니다.

‘나는 그분이 조각가의 작업장들에 앉아 있는 이 실레노스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주장하네.’⁸

알키비아데스가 엉뚱하게 소크라테스를 실레노스와 비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만이 소크라테스 안에 공존하는 아폴론적인 세계와 디오뤼소스적인 세계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소크라테스를 질책하지만, 그 이유가 어떠한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본 듯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폴론과 디오뤼소스의 의미를

⁵ 앞의 책, 122쪽.

⁶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136쪽.

⁷ 앞의 책, 137쪽.

⁸ 앞의 책, 154쪽.

해석하면서 실레노스의 비극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실레노스가 사튀로스의 우두머리요, 그 사실에만 집중하여 그가 추하고 야만적일 것이라고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듯이, 알키비아데스가 실레노스의 지혜를 알아차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소크라테스를 디오뤼소스적인 것에 비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레노스와 사튀로스가 나쁘다는 편견에서 벗어난 저는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진실로 눈뜬 자임을 알아차립니다.

“그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놓고 대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얻겠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참으로 ‘청동을 황금과’ 맞바꾸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네. 하지만 복 받은 자여, 내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자네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지 더 살펴보게. 단언컨대 마음의 시각은 눈의 시각의 정점에서 내리막으로 접어들려 할 때 날카롭게 보기 시작한다네. 그런데 자넨 아직 이런 것들에서 한참 떨어져 있네.”⁹

소크라테스에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은 육체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영혼,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키비아데스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크라테스의 육체가 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암시하며 두 번째로는, 전혀 어떠한 것도 아닌 자는 어떠한 것도 아니기에 그 어떠한 것에도 구속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마음의 시각>과 <눈의 시각>을 아폴론과 디오뤼소스의 관계에서 풀어봅시다. <마음의 시각>은 영혼의 시각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의 시각입니다. <눈의 시각>은 육체의 시각이며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아폴론의 이성이 디오뤼소스의 본능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힘으로 그리고 개별적 단위로 구별하려고 하듯, <눈의 시각>의 정점에서 그 아래로 벗어날 때 <마음의 시각>은 몸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육체의 아름다움을 좇는 것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이성과 영혼의 논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영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할 것을 강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마음의 시각>에서 즉, 아폴론의 세계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며 <눈의 시각>, 디오뤼소스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아폴론의 세계에 있는 소크라테스가 디오뤼소스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알키비아데스를 날카롭게 보며 자신의 차원으로 그를 이끌려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마음처럼 그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등장하기 전, 향연의 참석자들은 에로스를 정확히 아는 것 마냥 에로스를 확고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가상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향연』의 반항자인 알키비아데스가 그 증거입니다. 향연의 참석자들의 에로스에 대한 정의는 이상적이며 현실에 적용되기 쉽지 않음을 알키비아데스가 몸소 보여줍니다. 이는 아폴론적인 논리와 질서정연한 차원이 디오뤼소스적인 본능과 감각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향연을 평화롭게 끝내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랑 박사들의 식탁을 어지럽히는 반항자 알키비아데스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에로스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플라톤의 혜안에 놀랍니다. 이로써 향연의

⁹ 앞의 책, 164쪽.

마지막 손님이 알키비아데스가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그 마지막 손님은 『향연』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임을 알아차립니다.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사랑 또한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지요. 우리가 사랑을 단언하여 말할 수 있다 한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에는 답이 없고 길도 없습니다. 무한한 우주,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곧 답이며 오답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향한 고뇌 속에서 소크라테스를, 알키비아데스를, 아폴론을, 디오니소스를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로 얹혀 있었듯이 사랑에서 또한 영혼과 육체, 이성과 본능, 논리와 감각, 합리와 비합리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것들의 조화로 우리 인간은 사랑의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늘 재미있습니다. 다채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사랑의 심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열린책들, 2014.

플라톤, 『향연』, 이제이북스, 2014.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3.